

# “5·18 제대로 알리고 미얀마에 계속 희망 전할 것”

5·18 41주년 맞아 미얀마 돕기 나선 조대여고 학생들

향정 문구 새긴 물병 전교생에 나눠주며 모금활동...20일까지 80년 학생기자 조규백씨 초청 강연 등 역사 바로 알리기 노력

“눈 앞의 충구에도 지지 않는 들꽃이 되리”

17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본관 앞에 늘어선 학생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문구가 새겨진 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3학년만 등교하는 이날,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항쟁에 대한 내용이 적힌 설명판과 ‘세이브 미얀마’(save myanmar) 등의 문구 피켓을 들고 ‘미얀마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학살을 중단하라. 우리는 미얀마를 지지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미얀마를 돕기 위해 모금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또 미얀마 항쟁을 지지하는 문구와 그림이 새겨진 물병을 제작, 전교생에게 나눠주며 미얀마의 상황을 알렸고 각 교실마다 80년 5월과 미얀마의 현지를 알리는 글들을 붙여 재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을 심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활동은 학생회와 교내 역사동아리, 민주인권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을 이뤄 진행됐다.

지난 4월 교내에서 조총희 치른 세월호 추모식 이후 5월 5·18 민주화운동 추모행사를 고심하던 차에 언론 등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접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응원 물병.

한 후 약 한달여간의 준비를 거쳐 이날의 모금행사를 치르게 됐다.

학생들이 모은 성금은 5·18 재단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들은 모금활동과 함께 학생들에게 나눠줄 물병 750개를 직접 제작했다.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물병 표면에 새길 문구를 공모해 선정했고 미얀마 항쟁의 상징인 ‘세 손가락’ 그림도 학생들이 직접 도안해 새겨 넣었다.

전하량 조대여고 학생회장은 “5·18 민주화 운동



조대여고 학생들이 17일 학교 본관 앞에서 미얀마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에 대해 학교 교육과 언론을 통해 접해왔지만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아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 이번 기회를 빌어 학생들이 5월의 참사를 제대로 알고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를 알고 싶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행사를 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18이나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해 여전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어른들이 있어 안타깝다. 이번 행사가 끝난 뒤에도 5·18의 아픔을 제대로 알리고 나아가 미얀마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윤철한 조대여고 교장은 “학교에서는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해 80년 당시 전남대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조규백씨를 초청해 특강을 여는 등 학생들에게 80년 5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바르고 참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미얀마 돕기 모금활동은 2학년생이 등교하는 오는 20일에 한차례 더 진행된다.

/글·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달뜨기	10:21
해질	19:32	달짐	00:21

##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고기압 가장자리 들며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14/23	보성	구름많음	13/23
목포	구름많음	14/21	순천	구름많음	15/23
여수	구름많음	16/20	영광	구름많음	13/22
나주	구름많음	13/23	진도	구름많음	14/23
완도	구름많음	14/24	전주	구름많음	14/22
구례	구름많음	15/34	군산	구름많음	13/21
강진	구름많음	13/24	남원	구름많음	14/23
해남	구름많음	13/23	흑산도	구름많음	14/22
장성	구름많음	13/23			

## ◇ 전국 날씨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0.5
	면바다(북)	0.5~1.5	0.5~1.0	0.5~1.0
	면바다(남)	0.5~1.5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0.5
	면바다(서)	1.0~2.0	1.0~1.5	1.0~1.5
	면바다(동)	0.5~1.5	0.5~1.0	0.5~1.0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29	06:10
여수	23:22	18:07
	06:55	00:47
	18:54	12:38

##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관심	보통	좋음

## ◇ 주간 날씨

19(수)	20(목)	21(금)
15/28	18/22	15/23
22(토)	23(일)	24(월)
15/26	16/28	17/27



##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미얀마 돕기 200만원 성금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전지부)가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성금 200만원을 모아 5·18기념재단을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지지 광주 연대’에 전달했다.

광전지부 소속으로 5·18기념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지회 조합원들도 성금 전달식에 동참했다.

광전지부는 지난 4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우스퀘어 터미널에서 진행한 ‘미얀마 지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도 동참했다.

광전지부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는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과 닮아있고, 신군부가 자행했던 학살과 그 후 이어진 군사정권의 모습도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중들의 외침은 총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전지부 손동신 지부장은 “성금이 시민불복종 운동에 가담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안전을 위협받으며 수배, 수감,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는 병역노동자, 지방정부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원에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목포 출신 정승희씨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 판소리 명창부

목포 출신 정승희(39·사진)씨가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으며 명창 반열에 올랐다.

정씨는 16일 춘향제의 하나로 전북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박석고개 대박’을 열창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 47회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이번에 재도전 끝에 대상을 거머쥐었다.

목포 출신인 그는 할머니의 권유로 7살 때 소리에 입문했으며 중양대 국악대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장곡단 부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혜란·성우향·박양덕 명창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조영자 심사위원장은 “안정감이 있고 노련했으며 해학적인 면도 잘 갖췄다”고 평가했다.

정씨는 “어릴 적부터 명창의 꿈을 키워왔다”면서 “우리 소리를 알리고 전통의 맥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광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현옥)가 최근 광주시 5개구 지회장과 함께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각 지회는 구별로 헌혈의집 조선대·충장로센터, 터미널센터, 빛고을센터, 전대용봉센터, 광주송정역센터 등에서 헌혈했다.

(광주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 화촉

▲강세구(전 전남일보 정치부장)·조현정(동신대 홍보팀장)씨 장남 동혁(충남 예산 신양초 교사)군, 김남호(충남 논산여고 교사)·임경옥(동대전고 교감)씨 차녀 영주(충남 양양중앙초 교사)양=22일(토) 오후 1시 30분 대전시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 3층 라도무스홀.

###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금용 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

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방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

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 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 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부음

▲나순자씨 별세, 이효방(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업무팀장)씨 모친상=발인 19일(수) 오전 광주 구호전장레스토랑 302호 062-960-4444.